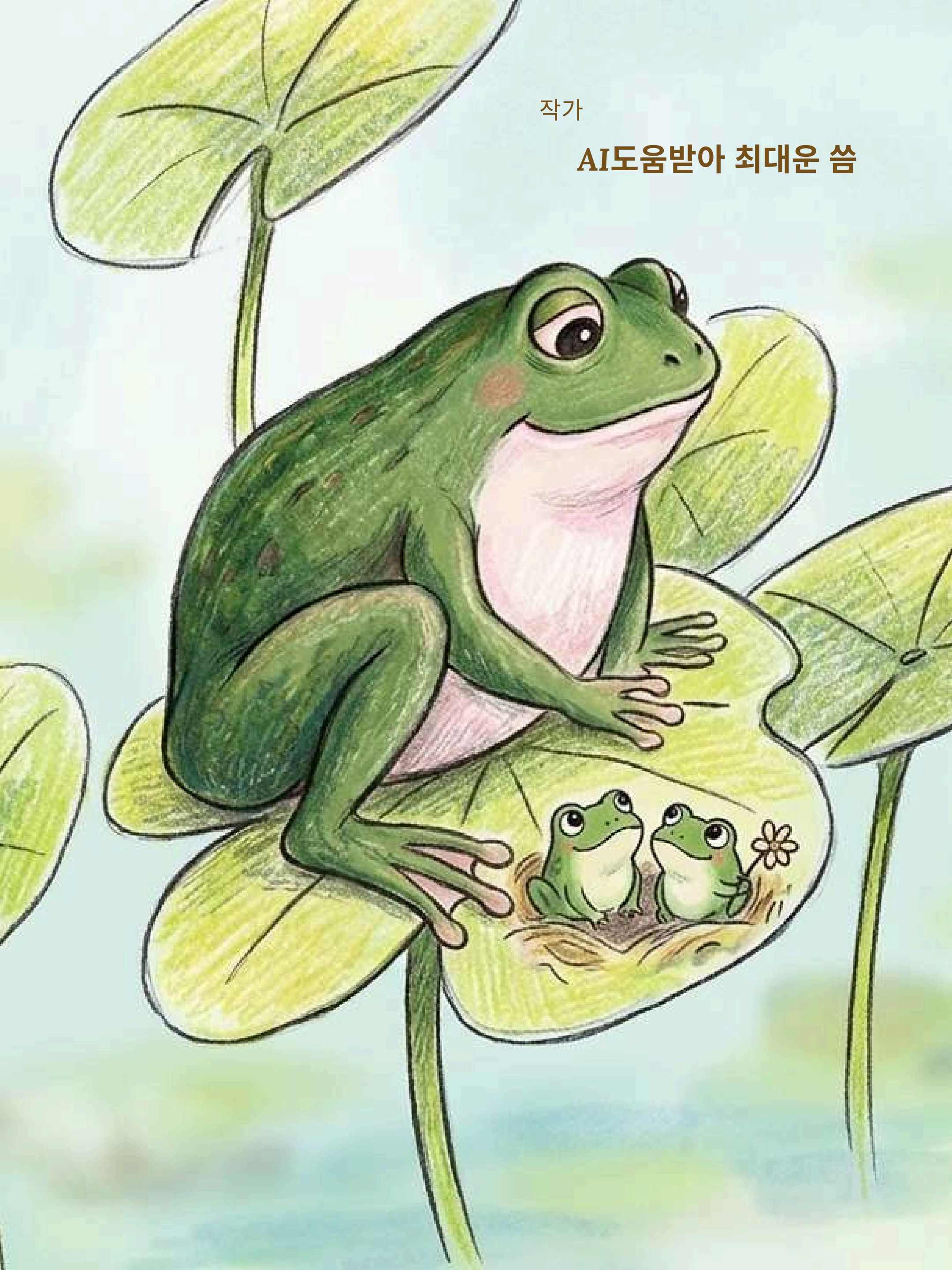


작가

AI도움받아 최대운 쌤



엄마 개구리
와 아기 개구리



작가프로필



가장 좋아하는 여름날의 싱그러운 햇살 아래, 반려견 '뱅크'와 함께 산책하고 땀 흘려 운동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연 속에서 뱅크와 발맞추어 걸으며 얻는 건강한 에너지와 영감은 제 창작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따뜻한 작업실 책상에 앉아 도화지 위에 알록달록한 이야기를 채워갈 때면, 제 곁엔 언제나 든든한 짝꿍 뱅크가 함께합니다. 뱅크의 맑은 눈망울과 계절이 주는 생동감을 담아,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다정하고 따스한 동화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연못가 제일의 멋쟁이 청개구리 구리!
반짝이는 초록 피부에 언제나 “난 참 쿨
해!”를 외치지요. 하지만 엄마 개구리는
구리만 보면 한숨이 뚝 나옵니다. “구리
야! 오메 환장허겄네. 하늘 좀 보라잉,
곧 비가 쏟아지겄다!”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자, 구리는 슬금슬금 댕청을 피웁
니다.



엄마, 전 쿨해서 빛속을 달리는 게 제일 죽
인다고요!” 구리가 개굴개굴 뛰어갈 때, 옆
연못에서 은빛 로봇 개구리 ‘뱅크’가 나타
났습니다. 반짝이는 몸매를 뽐내며 뱅크의
조수 ‘슈다리 룬아’가 얄밉게 거들었습니
다. “맞아요! 뱅크 형아는 최첨단이라 비가
와도 끄떡없다고요! 너희는 흙탕물이나 뒤
집어쓰라고!”

[3장]



이 모습을 본 구리의 단짝, 와일드한 구멍이
가 앞발을 쿵 구르며 나섰습니다. “야, 너만
잘났냐? 우리 구리 점프 실력이 얼마나 대
단한데!” 지기 싫어하는 구리의 눈에도 불
꽃이 팍 튀었습니다. 구리와 구멍이는 곧장
인간들이 버린 고철을 모아 비밀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똑딱똑딱, 위잉위잉! 구리와 구멍이는 밤새
도록 코드를 연결하고 나사를 조였습니다.
이마의 땀을 훔치며 구멍이가 털썩 주저앉
았습니다. “오메 죽었네, 싹빠지겠어! 그래
도 완성되니 겁나게 잘됐네!” 드디어 비바
람을 뚫고 하늘을 날 수 있는 ‘AI 개굴 슈
트’가 멋지게 완성되었습니다



그 시각, 엄마 개구리는 연못가 집을 단단히
고치고 있었습니다. “구리야, 비가 세게 오
면 연못 아래 구덩이에 꼭 숨어야 한다. 거
꾸로 돌아다니면 큰일 나! 엄마는 요새 아
주 되다, 되……” 엄마는 하품을 깊게 하며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구리는 밤하
늘을 보며 몰래 키득거렸습니다.

과르릉 쿵쿵! 이튿날,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외침을 뒤로한 채, 구리는 온몸에 AI 슈트를 장착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속에서 대기하던 구멍이가 깃발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구리, 준비하시고! 제트 엔진 발사!”

슈우우웅! 구리는 슈트의 힘을 빌려 하늘로
높이 솟구쳤습니다. “개굴! 보라고, 내가
바로 미래형 청개구리…… 어? 어라라?”
갑자기 귓가에서 지이익 소리가 나더니 슈
트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강
한 비바람에 AI 슈트의 회로가 꼬여버린 것
입니다.

“에러, 에러! 방수 한계 초과! 방전 임박!”

밑을 보니 자량만 하던 로봇 뱅크도 빗물에
젖어 지이잉 멈춰 가고 있었습니다. “으악,
오갈치겠다! 전기 통한다, 누가 좀 도와
줘!” 구리 역시 제어할 수 없는 슈트에 이끌
려 깊은 숲속 낭떠러지로 빨려 들어가기 시
작했습니다.

“오메, 구리야! 위험항게 연못으로 돌아와
잉!” 그때, 빗줄기를 뚫고 날아온 엄마 개구
리가 구리의 다리를 꼭 붙잡으며 외쳤습니
다. “구리야! 무조건 엔진을 거꾸로 돌려라!
거꾸로!” 구리는 AI 버튼 대신 제 힘으로 비
상 레버를 거꾸로 힘껏 당겼고, 둘은 연못
구덩이 안으로 폭신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맑게 갠 하늘 아래에서 모두 함께
방전된 배크를 고쳐 주었습니다. 엄마 개구
리가 고생한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무수와
지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음식
을 크게 먹은 구리가 엄지를 척 올렸습니다.
“와,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로 죽인다!” 이
제 구리는 비가 오면 기계에 의존하는 대신,
엄마와 함께 날씨를 느끼는 진짜 ‘쿨’한 청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원본 동화 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원본 이야기 요약

부안 사투리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원본 이야기 요약

원본 동화 이야기

동화는 짝수페이지 이어야 합니다. 주의~~~!!

원본 이야기 요약

원본 동화 이야기

마지막장에는 추천사:)

고치지 않기